

윤봉길 의사의 자기희생 리더십에 관한 소고*

A Viewpoint of Self-sacrificing Leadership about

Maeheon Yun Bong-Gil Martyr

김 영 재**

Youngjae Kim

국문요약

이 논문은 윤봉길 의사(이하 존칭 생략)의 생애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자기희생 리더십을 접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 자기희생 리더십은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조국 독립을 달성하려고 했던 의지와 실천이라고 정의했다. 윤봉길은 어릴 적부터 글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직을 구성해서 주변 사람을 계몽했다. 그는 성장하면서 말보다 글, 글보다 행동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더 큰 뜻을 펼치려고 중국으로 망명했다.

윤봉길은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바쳐서 독립 의지를 세계에 널리 알렸고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그는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자기희생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독립운동가에 어울리는 리더십 이론이나 관점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독립운동가 리더십 논의를 더 확대해야 국가의 정당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물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주제어: 윤봉길, 의사, 자기희생, 리더십, 살신성인

<http://doi.org/10.56475/ygsr.2023.28.2.29>

논문투고일 : 2023.11.06. 논문심사일 : 2023.11.10. 게재확정일 : 2023.11.27.

* 이 논문은 『2023년 유관순 열사 서거 103주기 기념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했음을 밝힙니다.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행정학박사,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E-mail: koreaafm@naver.com)
Invited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Dankook University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윤봉길의 자기희생 리더십 |
| II. 이론적 배경 | V. 맺음말 |
| III. 윤봉길 의사의 생애와 업적 | |

I. 머리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를 수 없는 독립운동가이자 위인인 매헌 윤봉길 의사(이하 존칭 생략)는 일본 주요 인사에게 폭탄을 투척해서 ‘상해 의거’라고 불리는 커다란 족적을 독립운동사에 남겼다. 만약 이와 같은 행동이 없었더라면 독립운동의 외연이 확장되기도 어려웠을 것이며 국제 사회에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젊은 나이에 의연하고 확실하게 독립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각인되어 있다.

윤봉길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대단한 위상을 갖춘 인물이다. 자기희생과 살신성인으로 한민족의 독립운동 의지를 만천하에 알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평가된다.¹⁾

워낙 ‘폭탄’을 던졌다는 이미지가 강해서 상해 의거가 일어나기 전까지 윤봉길의 삶을 모를 수도 있다. 물론 윤봉길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지만 전체 삶을 살펴볼 기회가 적었다는 뜻이다. 그는 어릴 적부터 글을 배우고 새로운 문물을 익혀서 문집을 쓰고 단체를 만들어서

1) 김형목(2023), 『윤봉길과 K-리더십에 대한 토론문』, 『유관순 열사 서거 103주기 기념 공동학술대회』, pp. 105-106.

농촌계몽운동과 청년운동에 열성을 가졌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의 감시가 심해지고 농촌 수탈이 집요해지자 국내에서 활동에 한계를 인식하고 뜻을 펼치려 중국으로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를 만나는 가운데 ‘백범 김구’를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 상해 의거를 계획하고 준비한다. 매우 빠르게 계획을 실행에 옮겨서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주요 인물을 사상했고 즉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아 순국에 이른다.

이 논문은 윤봉길의 생애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자기희생 리더십을 접목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의 생애를 조망하고 어떤 리더십 이론이나 시각으로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는 의미다. 다양한 리더십 이론 가운데 자기희생은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 요소로 보기도 하나 이 글에서 자기희생 리더십은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조국 독립을 달성하려고 했던 의지와 실천’으로 정의했다.

이 글은 먼저 자기희생 리더십 관련 연구를 검토해 개념화를 시도한다. 다음으로는 선행연구를 연대기 순서로 정리하고 유사한 특징으로 분류해 윤봉길에 관한 연구를 조명하려고 한다. 이어서 생애와 업적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자기희생 리더십 접목의 시사점과 한계를 동시에 논의한다.

윤봉길의 행적은 뚜렷하고 많은 연구가 있으며 후속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나 다른 독립운동가에게 리더십을 연결하려는 시도도 앞으로 필요하기에 이 글은 앞으로 독립운동가에게 적합한 리더십 이론, 시각, 관점을 발굴해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Ⅱ. 이론적 배경

자기희생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과 같이 널리 통용되는 리더십 관점의 한 가지 요소 정도로 여길 수도 있다. 그렇지만 리더 스스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자신을 희생해서 대의(大意)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설명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특히, 독립운동가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조국 독립에 헌신한 인물이기에 자기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입장이라는 점에서 아래와 같이 자기희생 리더십을 개념화하고 윤봉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자기희생 리더십의 개념화²⁾

자기희생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했으나 리더가 자기희생을 했을 때 효과와 과정을 계속 연구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리더의 자기희생은 ‘도덕성’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하는 리더십이다. 이는 구성원의 신뢰와 존경을 가져오고 내적 동기를 유발한다. 동시에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연결하는 필수 요소며 앞으로 리더의 자기희생 부문은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³⁾ 이는 자기희생적 리더십과 구성원의 다양한 직무수행은 정적 관계며 조직 상황에서 자기희생적 리더십의 유효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리더의 행동 못지않게 그 행동에 내재되어

2) 자기희생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십에 포함할 수도 있으나 윤봉길과 같은 독립운동가에게 적용하려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3) 윤한수·최은수(2015), 「변혁적 리더십 특성요인으로서의 ‘리더의 자기희생’에 관한 반성적 고찰」, 『평생교육·HRD 연구』 11(2), 97~98쪽.

있는 동기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연구도 있다.⁴⁾

20세기 후반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은 효과적으로 조직 목표를 달성하려면 구성원의 자발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타율적으로 구성원을 통제하기보다는 구성원의 인식, 태도 등에 변화를 일으켜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직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리더십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에 연구자들은 변혁적, 카리스마적, 섬김(Servant) 리더십에서 리더의 자기희생이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했다. 변혁적 리더십에서 추종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하려면 리더의 자기희생은 필요하며 그러한 행위는 추종자와 구성원의 존경과 신뢰를 불러일으킨다.⁵⁾

다른 면에서 자기희생 리더십은 조직 상황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이익, 특권, 복리를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행위를 자기희생이라고 볼 수 있다.⁶⁾ 예를 들어, 조직에 누군가가 위험한 업무를 자청할 때도 자기희생이며 어떤 업무를 분담할 수 없을 때 특정 인물이 그 위험 감수하려는 행동도 마찬가지다. 리더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행위를 자기희생으로 볼 수 있다. 대체로 리더가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기에 이를 자기희생이라고 여길 수 있다. 업무 역할이나 범위가 불명확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동도 자기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⁷⁾ 예를 들어, 조직 업무 분장이 불명확할 때 책임을 회피하려고 구성원이 다투는 경우 리더는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할 수 있다. 어떤

4) 손승연(2012), 『자기희생적 리더십과 직무수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최병순·김진호(2006), 『리더의 자기희생이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인사관리연구』 30(2), 118~119쪽.

6) Stefano Ruggieri & Costanza Scaffidi Abbate(2013), "Leadership Style, Self-Sacrifice, and Team Identification",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41(7), pp.1171-1174.

7) 최 연(2001), 『자기희생적 리더십 : 연구현황과 과제』, 『인사관리연구』 24(2), 220~225쪽.

연구는 자기희생을 실제로 리더 스스로 희생한다기보다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의지’라고 해석하기도 했다.⁸⁾ 자기희생은 조직 내부에서도 관찰할 수 있으며 그것은 변혁적 리더십 등을 발휘할 때 필요한 요소라고 했다.

시간이나 시점에 따라 자기희생 리더십을 구분할 수도 있다. 먼저 ‘급진적 자기희생’은 단기간, 대규모로 자기희생을 하는 일이며 살신성인이 대표적이다. ‘점진적 자기희생’은 장기간 작은 규모의 자기희생이 지속되는 형태다. 예를 들어, 평생 모은 기부금을 사회에 쾌척 또는 환원하는 행위다. 이와 같은 자기희생을 이타적 행위 또는 호혜주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경향도 있으나 조직이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구성원이 역할을 다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스스로 조직에 희생할 수 있을 때 자기희생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⁹⁾

학문 분야별로 자기희생 리더십을 개념화하기도 한다. 정치학은 자기희생을 국가 또는 이념을 달성하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거나 위협을 무릅쓰는 행위로 이해한다. 사회학에서는 조직이나 집단의 소속되거나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무언가를 포기할 때를 가리킨다. 경영학에서는 조직설계의 불완전성이나 조직의 모순점을 자발적으로 흡수할 때를 자기희생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연구 목적, 대상, 맥락에 따라 자기희생을 이해하는 시각이 다르다.¹⁰⁾

윤봉길은 정치학 관점, 급진적 자기희생과 같이 ‘살신성인’의 자세를 몸소 보여준 인물이다. 당시 독립운동이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었던

8) Niti Singh, Venkat R. Krishnan(2008), "Self sacrifice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mediating role of altruism", *Leadership & Organization Development Journal* 29(3), p.263.

9) Choi, Y., & Mai-Dalton, R. R.(1998), "On the Leadership Function of Self-Sacrifice", *The Leadership Quarterly* 9, pp.475-501.

10) 손승연·노명화·윤석화(2012), 『자기희생적 리더십: 개념적 정의 재조명 및 통합 연구모형 제시』, 『리더십 연구』 3(3), 68~62쪽.

기회를 만들었기에 큰 뜻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¹¹⁾ 이렇게 윤봉길의 자기희생 리더십은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조국 독립을 달성하려고 했던 의지와 실천’으로 정의할 수 있다.

모든 독립운동가는 같은 뜻을 가지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했기에 리더십을 갖추었으나 그 리더십 유형은 다를 수 있다. 가족, 성장 배경 등이 다르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리더십 발휘 형태도 다를 수 있다. 자질론, 행태론, 상황론과 같은 리더십 영역만으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변혁적 리더십, 섬김 리더십, 진성 리더십 등으로 독립운동가를 살펴볼 수 있는 ‘렌즈’를 마련해야 한다.¹²⁾

이에 윤봉길을 연구 대상으로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조국 독립을 달성하려고 했던 의지를 실천한 자기희생 리더십은 다른 독립운동가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더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범학문적으로 이루어진 풍부한 리더십 연구를 한국 독립운동가에게 적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2. 윤봉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윤봉길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이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한 내용을 연대기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특징이 유사한 연구를 묶어서 정리하기로 한다.

김학준(1992)은 『매헌 윤봉길 평전』에서 선구자적 농민운동가 ·

11) 논어의 <위령공편(衛靈公篇)>에 나오는 말이다.

12) 거래적 리더십도 매우 널리 알려져 있으나 독립운동가가 조국 해방을 두고 누군가와 거래했다고 볼 수는 없다.

독립운동가의 생애를 연구했다. 첫째, 매헌은 일신과 가족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항일독립운동가로 생애를 바쳤다. 둘째, 조국 광복의 순교자이면서 농촌부흥운동의 선구자다. 셋째, 매헌은 불의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살신성인의 정신을 지녔다. 넷째, 자기희생은 한민족의 숙명을 표현한다. 이처럼 윤봉길 의사는 독립운동의 ‘기관차’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¹³⁾

김광재(2002)는 “윤봉길의 상해의거와 중국측 역할”을 살펴보면서 윤봉길의 의거는 항일독립운동이 세계에 알려진 계기였으며 일각의 테러라는 주장보다 특무활동 또는 특공작전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소수의 폭력 활동이라는 시각이라기보다는 소수의 인원으로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의열투쟁이라고 해야 설득력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¹⁴⁾

김형목(2002)은 “윤봉길의 현실인식과 청년운동사상 위치”를 연구하면서 윤봉길은 민중 본위에 입각해 청년운동을 주도했으나 국내 운동 세력과 연대나 협력을 도모하지 않은 부분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지역사회 조건이 원인이며 계몽운동이 식민정책에 왜곡되는 실상이 더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¹⁵⁾

진영미(2004)는 “윤봉길 시문집 재고”에서 시문집이 과연 윤봉길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다. 이에 윤봉길이 직접 짓고 썼다고 알려진 시문집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직접 쓴 것이 분명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다만, 시문집에 윤봉길의 시가 일부 수록되어 있고 시문집에 실린 다른 유명 인사와 관계가 깊다는 점을

13) 김학준(2008), 『매헌 윤봉길 평전』, 민음사, 1992, 450~457쪽; 그림으로 보는 윤봉길 의사 생애도 참조할 것(예산군, “아~윤봉길”, 윤규상(글 감수)·김순길(편집 그림).

14) 김광재(2022), 「윤봉길의 상해의거와 중국측 역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3.

15) 김형목(2022), 「윤봉길의 현실인식과 청년운동사상 위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3.

고려할 때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했다.¹⁶⁾

박용옥(2009)은 “윤봉길 의사의 농촌 운동” 연구에서 윤봉길은 진취적 사상을 가지고 농촌운동을 시도했고 봉건적 요소와 심한 갈등이 없음을 주목했다. 무지를 타파해야 하며 농민교육 교재를 만들었으나 일제 감시가 심해지고 경제적 착취가 가중되는 모습에 분개해서 고향을 떠났다고 분석했다.¹⁷⁾

한시준(2009)은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의거에 대한 중국신문의 보도”에서 중국신문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의거를 보도했고 의거 당일부터 직접 취재했다. 기념식장 모습, 폭탄 투척 상황, 체포와 심문, 일제 참석자의 사망과 부상, 치료 경과, 한인의 체포와 수색, 일본 당국 대책, 중국인의 반향 등으로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이에 중국신문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윤봉길 의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했다.¹⁸⁾

정진석(2011)은 “도전적으로 싱글거리는 표정이었다(뉴욕타임스)”라는 글에서 외국 신문의 윤봉길의 상하이 의거 보도를 다루었다. 이 글은 영국과 미국 신문 보도와 현장에서 일본 신문 특파원이 촬영한 사진을 어떤 경로로 일본으로 긴급 수송했으며 그 사진이 한국 신문에 실린 경위를 추적했다. 현장 사진을 실은 호외는 5월 1일 처음 발행되었으며 《뉴욕타임스》는 윤봉길의 모습을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묘사한 기사를 실었다고 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일본의 인명 피해보다 정전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관심을 두는 기사를 실었다고 밝혔다.¹⁹⁾

16) 진영미(2004), 『윤봉길 시문집 재고』, 『한국교육연구』 23.

17) 박용옥(2009), 『윤봉길 의사의 농촌운동』, 『한국인물사연구』 12.

18) 한시준(2009),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의거에 대한 중국신문의 보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2.

김재욱(2016)은 “윤봉길 의거를 제재로 한 중국현대문학 작품과 그 특징”에서 윤봉길을 묘사한 문학 작품에 나타난 상하이 의거는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과 중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중국 지식인의 관점과 한국인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작품은 식민지 시기에 한국 문학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윤봉길의 항일투쟁을 묘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²⁰⁾

홍선표(2018)는 “윤봉길 의거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반응” 연구에서 국내의 언론과 미국과 유럽 언론에 나타난 윤봉길 의거 보도 내용을 분석했다. 민족 언론은 한국독립운동 실상 보도에 초점을 두었고 조선총독부 기관지는 일본인 피해 상황과 정전협정 진행에 초점을 두었다. 구미 언론은 의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거나 침묵하기도 했으며 정전협상 재개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보도 경향을 보면 세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독립운동이었으며 윤봉길 의거가 높이 평가받을 이유가 있다고 했다.²¹⁾

김상기(2022)는 “상해의거가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과 역사적 의의”에서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상해의거만큼 커다란 성과가 있던 사건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퇴조하던 한국 독립운동을 고양했고 체념에 빠지려던 국내외 한국인에게 독립정신을 각성시켜 구국항일전에 나가도록 했다.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고 윤봉길 순국 이후에 한인의 민족 대단결을 도모하는 행사가 잇달았다.²²⁾

-
- 19) 정진석(2011), 『도전적으로 싱글거리는 표정이었다』, 현대사 속의 언론, 한국언론진흥재단.
 20) 김재욱(2016), 『윤봉길 의거를 제재로 한 중국현대문학 작품과 그 특징』,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55.
 21) 홍선표(2018), 『윤봉길 의거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반응』, 『민족운동사연구』 97.
 22) 김상기(2022), 『상해의거가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과 역사적 의의』, 『청년 윤봉길 평화를 꿈꾸다』, 윤봉길 의사 상하이이거 90주년 기념 대토론회, 국회의원 윤주경·매헌

장석홍(2022)은 “윤봉길 의사가 꿈꾼 민족 독립과 인류 평화”에서 백범 김구와 인연을 언급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김구로부터 많은 감명과 영향을 받았고 윤봉길을 진정한 인문주의자로 평가했다. 또한 “제국주의가 멸망하는 날을 조금 앞당겨 약소민족의 해방을 위해 전개한 것”이라고 표명한 대목을 인용하면서 한국 독립운동은 평화 운동이자 인도주의 운동이라고 했다.²³⁾

손성욱(2023)은 “1930년대 중국에서의 윤봉길 이미지 변화 양상” 연구에서 중국 잡지에 실린 홍커우공원사건 관련 기사를 분석해 윤봉길의 형상화 과정을 밝혔다. 당시 윤봉길의 행동에 감복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암살이라는 방법을 비판하고 이 사건 때문에 중국에 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지만 김구는 윤봉길 선서 사진과 선서문을 공개하면서 중국인의 시선은 윤봉길에게 모여졌다고 결론지었다.²⁴⁾

위와 같이 연대기 순서로 정리된 윤봉길 의사 선행연구를 특징별로 묶으면 아래와 같다.

<표 1> 선행연구 주요 특징

구분	연구자(연도)	주요 특징
선구자	김학준(1992)	독립운동가, 순교자, 살신성인, 기관차
	장석홍(2022)	김구와 인연, 인문주의자면서 평화운동가
상해 의거	김광재(2002)	중국에서 상해 의거를 의열투쟁으로 인식
	한시준(2009)	상해 의거에 대한 중국 신문 보도의 중요성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 매현윤봉길월진회.

23) 장석홍(2022), 『윤봉길 의사가 꿈꾼 민족 독립과 인류 평화』, 『청년 윤봉길, 평화를 꿈꾸다』, 윤봉길 의사 상하이의거 90주년 기념 대토론회, 국회의원 윤주경 · 매현윤봉길 의사기념사업회 · 매현윤봉길월진회.

24) 손성욱(2023), 『1930년대 중국에서의 윤봉길 이미지 변화 양상』, 『독립운동사연구』 82.

구분	연구자(연도)	주요 특징
	정진석(2011)	외국 신문에서 보도한 상해 의거의 파급력
	홍선표(2018)	상해 의거가 주었던 국내외 언론 반응
	김상기(2022)	상해 의거의 역사적 의미
농촌 운동	김형목(2002)	청년 운동 실천과 현실 인식
	박용옥(2009)	농촌운동 실시와 한계 인식
글 이미지	진영미(2004)	시문집의 역사적 가치
	김재욱(2016)	상해 의거를 소재로 만들어진 중국 문학
	손성욱(2023)	중국에서 윤봉길 이미지 변화 양상

첫째, 윤봉길을 ‘선구자’로 인식하는 연구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윤봉길은 독립운동의 ‘기관차’, ‘기폭제’ 역할을 했으며 상해 의거를 비롯해 족적(足跡)이 독립운동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며 주로 삶의 궤적을 다루고 있다.

둘째, 윤봉길의 ‘상해 의거’에 초점을 맞춘 연구다. 이는 테러나 암살이라는 소수의 우려나 시각이 아니라 항일독립운동을 세계가 알린 사건이었다고 판단했다. 중국신문을 비롯한 세계 언론보도를 인용했고 그 파급력이 예상보다 컸다. 특히, 윤봉길 의거로 항일전선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었고 세계적으로 독립운동의 존재감을 알리고 위상이 높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당시 보도되었던 국내외 언론 기사의 논조를 분석해 윤봉길 의사의 행동이 국제정세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윤봉길의 ‘농촌운동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연구다. 농촌운동과 청년운동을 주도해서 나타난 성과를 살펴보면서도 국내에서 윤봉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었고 이에 중국으로 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당시 국내 상황이 일제 강점으로 한층 심해질 때이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윤봉길 관련 ‘글’과 ‘이미지’ 연구한 경우다. 윤봉길 의사가

썼던 글이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탐색하거나 윤봉길 의사를 소재로 중국 현대 문학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는 형태다. 아울러 윤봉길이 활동했던 당시 중국에서 이미지를 연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조국 독립을 달성하려고 했던 의지와 실천해 자기희생 리더십을 발휘했던 윤봉길은 짧은 생애에도 ‘폭발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의 발자취는 국내외 독립운동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 독립운동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많은 선행연구가 윤봉길의 뜻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조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윤봉길을 비롯해 모든 독립운동가를 살펴볼 수 있는 리더십 이론을 접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윤봉길의 생애와 업적을 살펴보면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Ⅲ. 윤봉길의 생애와 업적

윤봉길의 출생과 가정 환경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목밭이 마을)이라고 하는 농가에서 ‘섬 속의 섬’에 자리한 ‘광현당’에서 아버지는 윤황(尹璜), 어머니는 김원상(金元祥)에게서 태어났다. 본명은 윤우의(尹禹儀), 봉길(奉吉)은 별명으로 서당을 마칠 때 스승 매곡 성주록에게 매헌이라는 호를 받았다”고 동생 故 윤남의가 밝히고 있다.²⁵⁾ 대체로 그의 행적은 예산(출생)에서 시작해 삼교 → 서울 효창원 → 선천 → 신의주 → 단동 → 청도 → 상해 → 오사카 → 가나자와(순국) → 도쿄 · 부산 → 서울이라고 볼 수 있다.²⁶⁾

25) 윤봉길 의사의 출생과 가정 환경은 동생 故 윤남의 선생이 밝히고 있다.

윤봉길의 연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계몽운동은 국권을 회복하고자 개화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운동이다. 시간이 걸려도 실력을 길어야 한다는 ‘실력양성론’, 자주적 ‘자강독립론’을 주장했다.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민족자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산업활동 진흥에 노력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제강점기의 무단통치가 심해지면서 만주 지역에 독립군 기지를 세워 계몽운동을 독립전쟁으로 점차 전환했다. 1920년대 독립운동은 사회, 경제, 문화 등에서 전개되었으며 언론, 출판, 교육 등에서 실력을 양성하고 독립 준비를 강조했다. 윤봉길도 1926년 ‘오치서숙’을 졸업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이웃 주민의 무지를 깨우치고 실력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야학 설립, 토론회, 강연회, 학예회를 개최하고 농촌을 부흥하는 월진회를 조직해서 계몽운동을 실행했다.²⁷⁾

<표 2> 윤봉길 연보

연도	연령	주요 내용	비고
1911	출생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랑리 178번지 “광현당”	저한당(시랑리 139번지)로 이사
1918	11	덕산공립 보통학교 입학	큰아버지 윤경에게 한문 수학
1920	13	최병대 문하에서 한학 수학	신문물 신사상 수용
1921	14	매곡 성주록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음	서당 오치서숙

26) 윤봉길 의사 관련 사적지는 국내에서 서울 매현윤봉길의사기념관, 효창공원 내 의사 묘역, 예산 충의사 등이 있다. 국외에서 중국 상해 루쉰 공원, 일본 가나자와 순국지가 있다.

27) 오치서숙의 위치는 ‘둔2리 노곡 16길’에 위치했다는 증언으로 고증되었다(뉴시스, “예산군, 윤봉길 의사의 글방인 오치서숙 역사 고증”, 2020.10.15). ; 인형극에서 토끼는 한국인, 여우는 일제를 상징했다고 해서 윤봉길 의사는 조사를 받았고 일제의 식민 비재가 없는 진정한 대한국민으로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결심한다(윤주경 의원실·매현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매현윤봉길월진회, “청년 윤봉길, 평화를 꿈꾸다 [전자자료]: 윤봉길 의사 상하이의거 90주년 기념 대토론회”, 2022).

연도	연령	주요 내용	비고
1922	15	성주 배씨 용순 여사와 결혼	
1923	16	오치서숙 중추절 시회에서 장원	시문집을 남김
1926	19	묘표사건	문맹퇴치의 중요성을 절감
1926	19	오치서숙 졸업, 농촌계몽 시작, 야학 설립	매헌 아호 받음
1927	20	농민독본(3권) 저술	농민야학 교재용
1928	21	부흥원 설립, 독서회 조직, 강연회 개최	수암체육회 및 구매조합 결성
1929	22	기사년 일기 집필 시작 월진회/위친계 조직	야학 아동 학예회 개최
1930	23	장부출가생불환(중국 진출)	만주 안동 → 중국 청도 세탁점 취직
1931	24	거류민단장 이유필, 안공근 만남 한인공우회 조직(야학/노동운동)	청도 → 상해 모자 공장 취직
1932	25	김구와 만남(독립운동 뜻 전달) 의거 계획과 준비, 한인애국단 선서식 거행	야채상 개업
		자필이력서/유족시를 김구에게 전달	기념 촬영
		홍커우 공원에서 단상에 수통형 폭탄 투척	4월 29일
		상해파견군 군법회의 단심제에서 사형 선고	5월 25일
		오사카 육군형무소(9사단) 수감	11월 18일
		가나자와 위수구금소 이감	12월 18일
		총살형으로 순국	12월 19일

출처: (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홈페이지(2023)를 참고해 저자 재구성.

윤봉길은 19살에 야학당을 개설했는데 17세부터 18세까지 자신의 사랑방에 서당을 차리고 아동을 가르치다가 19세 ‘공동모지 묘표사건’을 계기로 계몽운동에 본격 참여했다.²⁸⁾ 이때부터 1927년 야학 교재로 사용하려고 『농민독본』 3권을 저술했다. 1권은 ‘조선글편’, 2권은 ‘계몽편’, 3권은 ‘농민의 앞길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글편은 한글의 기본을 설명하는 내용이며 계몽편은 조선인의 예절과 일반 상식이었으며 농민의 앞길편은 자주정신과 평등사상을 강조했으며

28) 묘표에 적혀 있는 한자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서 윤봉길은 당시 백성의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했다(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홈페이지, 2023).

자유를 언급했다. 농민의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고 조선의 힘은 ‘농민’에게 나오기에 미래 세상은 농민이 중심이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독서회’는 야학의 학습 내용을 더 충실히 하고 독서를 활성화하며 한 달에 1번 계몽 강연회와 토론회를 열어서 의견을 개진하지는 방안을 만들었다.

조선은 농민의 나라로 ‘농사천하지대본’을 밝히며 조선이 상공업의 나라로 변하더라도 인류의 생명은 농업에서 출발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조선의 미래는 농민에게 있으며 농민이 실력을 양성해서 농촌이 부흥할 수 있도록 농민 본위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이에 ‘목계농민회’는 증산 운동과 공동구매조합 결성이었다. 증산은 농업 방법 개선과 특용 작품 재배였으며 고구마 재배법 개선과 양잠과 부업을 권장했다. 또한 돈이 없어 돼지를 살 수 없는 농민에게 돼지를 무료로 주고 새끼를 낳으면 그 절반은 기른 농민에게 나머지는 다른 농민에게 주는 방법도 개발했다. 공동구매조합은 농민이 수확한 농산물을 비싼 값에 공동 판매하고 일용품이나 비료 등의 필요 물품을 도매로 싸게 사자는 뜻이다. 농민회는 ‘월진회’로 발전되어 부흥 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이외에서 농민의 건강한 신체 단련을 목적으로 ‘수암체육회’를 운영하고 ‘위친계’를 조직해서 경조사 등을 서로 돕도록 했다.²⁹⁾

1920년대 윤봉길은 실력양성운동을 실천했으나 한계를 인지하다가 일제의 감시를 받기도 하다가 시조사 기자 ‘이흑룡’과 만나면서

29) 부흥원은 1928년 4월 15일 윤봉길 의사가 마을을 부흥시킨다는 의지를 담아 청년들과 함께 만든 집이다. 부흥원은 농촌계몽운동과 부흥 운동의 근거지가 되었다. 수암체육회는 단순한 체육이 아니라 윤봉길 의사가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에 공감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며 체육 장려가 민족 단결을 강화하는 근원이라는 점을 인식했다. 월진회는 총 37명이 회원의 상호상애를 근거로 근검절약 이행과 아름다운 미숙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자급자족과 스스로 운명 개척을 강조했다. 창립취지서, 회칙, 금언, 월진회가, 회원 명부, 월진회기가 남아 있다(매현윤봉길 의사가념사업회 홈페이지, 2023).

의열투쟁과 무장독립투쟁에 관심을 가졌다. 이에 1930년 3월 6일 ‘장부출가생불환(장부가 집을 나서 뜻을 이루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 오지 않는다)’는 글을 남기고 만주로 간다.³⁰⁾ 윤봉길은 ‘한인애국단’ 단원이 되면서 일본이 상해사변 전승행사 및 일왕 생일 축하기념식을 홍콩 공원에서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김구와 의거를 계획했다. 단장인 김구 입회하에 태극기 앞에서 선서문을 직접 작성하고 사진 3장을 남겼다. 사진 답사를 철저히 마치고 ‘자필이력서, 유촉서, 시랑리가’를 작성해서 김구에게 전달했다.³¹⁾

나는 적성(참된 정성)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 하나이다(대한민국 12년 4월 26일 선서인 윤봉길 한인애국단 앞).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은 도시락과 수통 폭탄을 가지고 3만 명이 모여 있는 홍콩 공원에 도착했다. 축하식에서 일제 군관민 수뇌부 7명이 나란히 기미가요를 합창할 때 단상과 4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수통폭탄을 단상 위로 투척해 성공적으로 폭발했다. 윤봉길은 도시락 폭탄으로 자결하려고 했으나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되었다.³²⁾

‘상해의거’는 외국에 조선의 존재를 알리는 기폭제였으며 중국과 공동으로 항일 전선을 구축하는 계기였다. 이후 ‘카이로회담’에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조항이 삽입된 이유는 윤봉길의 공헌이라고 컸다고 해도

30) 스타벅스 코리아는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와 매헌윤봉길월진회에 독립문화유산 보존 기금 2000만원과 1932개 기념 텀블러를 전달하기도 했다(천지일보, “스타벅스 텀블러에 ‘장부출가생불환’ 문구 담아… 윤봉길 의사 ‘의거 기념’”, 2022.04.27.)

31) 선서문을 목에 걸고 찍은 사진, 기념 촬영 독사진, 한인애국단 단장 김구와 같이 찍은 사진은 유명하다.

32) 김구의 『백범일지』에 윤봉길의 상해의거에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무방하다. 1932년 생해 파견 일본군 헌병대 신문 내용을 보면 상해의거의 이유로 ‘조선인의 각성을 촉구하고 조선의 존재를 세계가 명확히 알도록 하는데 있으며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믿는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후 윤봉길은 군법회의에서 조사받았고 ‘살인 및 살인미수, 폭팔물 취체 벌칙 위반’으로 한 달도 되지 않아 사형이 선고되었다. ‘옥중 청취서’는 윤봉길이 유서를 작성할 때 관련된 인물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향의 ‘시랑리가’를 순수하게 혼자 자작했으며 매일 시 쓰기를 공부해서 충분히 글을 적을 수 있는 소양이 있다고 진술했다. 사형 집행 직전에도 “사형은 이미 각오하여 이에 임하여 하등의 할 말이 없다”고 결연하게 진술한 다음에 총살형으로 순국한다.

윤봉길 유해는 일본법에 따라 가족에게 인계해야 하나 당시 일제는 공동묘지 한 구석에 평장해서 유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했다. 1945년 해방 이후 윤봉길의 고향인 덕산에서 ‘윤봉길선생유골봉환위원회’가 조직되어 김구는 이봉창 의사, 백정기 의사의 유해봉환을 임시정부에서 시행하겠다고 했다. 유해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았으나 발굴에 성공했고 부산에서 분향과 추도식을 마치고 서울로 옮겨져 첫 국민장으로 장례식이 거행되어 효창원에 안장되었다.

윤봉길의 순국 이후에도 여전히 재조명되는 기회는 많다. 2023년 윤봉길 의사 상하이 의거 91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다.³³⁾ 또한 이봉창과 윤봉길 의거 당시 폭탄을 제공한 김홍일 장군 제43주기 추모제가 열렸다.³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윤봉길 의사 유서> 등을 특별공개했으며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33) 『윤봉길 의사 송고한 애국·독립 정신 영원히 기억』, 『국방일보』, 2023.04.30.

34) 『윤봉길·이봉창 의거 폭탄 지원한 김홍일 장군 추모제 22일 거행』, 『연합뉴스』, 2023.09.21.

되어라”고 당부하는 유서는 윤봉길의 뜻을 읽을 수 있는 자료다.³⁵⁾ 의사의 뜻을 기리는 행사는 다양하게 열리고 있으며 예산군청은 ‘제50회 윤봉길 평화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³⁶⁾

최근 윤봉길은 ‘인공지능&데이터 융합 분야’에서 인공지능으로 구현되기도 했다.³⁷⁾ 아울러 창작 오페라 ‘매헌 윤봉길’, 특별기획 연극 ‘청년 윤봉길’, 뮤지컬 ‘위치’와 같이 현대에서도 재현되고 있다.³⁸⁾ 2008년 남극, 금강산, 윤봉길 의사 우표 발행 계획³⁹⁾이 발표되었으며 의사의 혼을 잠수함 건조에 담아서 ‘윤봉길함’이 만들어지기도 했다.⁴⁰⁾ 이렇게 윤봉길은 순국 이후에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재현됨으로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알리는 역사현장으로 다가오고 있다.

IV. 윤봉길의 자기희생 리더십

1. 자기희생과 살신성인 리더십의 시사점

이 글은 윤봉길 의사의 삶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자기희생 리더십을 접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윤봉길 의사의 생애를 조망하기도 하지만 어떤 리더십 이론이나 시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려는 목적까지 포함한다. 다양한 리더십 이론 가운데 이 글에서 자기희생 리더십을

35) 「투사가 돼라 윤봉길 의사 유서엔」, 『주간경향』, 2023.08.14.

36) 「예산군, ‘제50회 윤봉길 평화축제’ 성료」, 『충남일보』, 2023.10.03.

37) 「AI로 구현된 윤봉길 의사...소통도 가능해져!」, 『브레인미디어』, 2023.07.12.

38) 「창작오페라 ‘매헌 윤봉길’ 주인공, 양승호 테너」, 『퍼블릭뉴스』, 2023.09.07.; 「극단 예촌, 윤봉길 의거 90주년 특별기획 연극 ‘청년 윤봉길’ 공연」, 『투데이신문』, 2022.06.28.; 「예산군, 윤봉길 의사 일대기 그린 뮤지컬 ‘위치’ 피날레」, 『아시아투데이』, 2019.10.06.

39) 우정사업본부, “2008년도에 남극, 금강산, 윤봉길 의사 우표 나온다”, 2007.12.31.

40) 정운화(2015), 「대한독립을 위해 산화한 윤봉길 의사의 혼을 잠수함 건조에 품질로 넣어 넣다」, 『기술로 품질로』 35.

자기희생 리더십은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조국 독립을 달성하려고 했던 의지와 실천’으로 정의했다. 변혁적 리더십 등에 하위 요소로 취급되었던 자기희생은 리더의 ‘도덕성’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하거나 그러한 의지를 표현했기에 살신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기희생을 발휘하는 구성원의 신뢰와 존경을 가져오고 내적 동기를 유발한다. 윤봉길은 자기희생 리더십을 발휘해 순국했고 그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감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정세까지 영향을 주었다.

윤봉길의 일생을 연보로 살펴보면 한문을 수학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어린 나이에 시문집을 남길 정도로 글을 쓰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야학 교재는 당시 새로운 문물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기에 지식 수용성도 넓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아울러 각종 조직을 만들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말보다 글’로 자신을 드러내는데 익숙했다고 볼 수 있고 ‘장부출가생불환’이라는 대목에서 나타난다. 다만, 당시 일제의 강압 통치가 심해지고 국내 활동의 한계를 인식해 중국에서 뜻을 펼치기로 결심했다.

그러다가 독립운동하는 사람과 마주하고 김구를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며 매우 짧은 시간에 의거 계획, 준비, 사전 답사 등을 실시했다. 이에 자필이력서 등을 김구에게 전달하고 홍커우 공원에서 단상에 수통형 폭탄을 투척해 의거를 단행했다. 짧은 생애에 의사는 자기희생과 살신성인의 리더십을 보여준 대표적 인물이자 사제라고 할 수 있다. 윤봉길은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바쳐서 독립의 의지를 확고하게 널리 알렸기에 자기희생과 살신성인 리더십을 발휘했다.

2. 독립운동가에 대한 리더십 이론의 접목 가능성과 한계

윤봉길을 포함해서 김구, 안창호 등과 같이 국민이 잘 알고 여러 형태의 기록으로 남겨진 독립운동가는 적지 않은 편이다. 독립운동가 연구는 인물마다 기념사업회가 있거나 정부에서 인물 탐구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⁴¹⁾ 윤봉길은 기록물이 잘 보존되어 있고 후속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서 리더십 이론 적용에 어려움이 없다. 그렇지만 독립운동에 헌신적 노력을 다하거나 때로는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록이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리더십 연구를 시도하기가 매우 어렵다. 결국 독립운동가와 리더십을 연결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료’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후속 연구나 사실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⁴²⁾

이에 독립운동가마다 어떤 리더십 이론이나 관점으로 적용 또는 접근할지 고민할 시점이다. 물론 한 명의 독립운동가에게 여러 가지 리더십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연구자마다 동일 인물을 두고 리더십 유형이나 관점을 달리 볼 수도 있다. 또한 윤봉길을 포함해서 독립운동가에 리더십 이론을 접목할 때 일정한 한계도 있다.

첫째, 리더십을 단순화하거나 도식화해서 독립운동가에게 적용하다 보면 인물의 환경, 성장 과정, 인간관계 등의 많은 요인을 간과할 수 있다. 윤봉길의 인생 역정을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만 리더십 이론과 연결에 무리가 없다는 논리다. 덕산공립보통학교를 중퇴한 배경,

41) 국가보훈부·광복회·독립기념관 공동으로 매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소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윤봉길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아는 인물이 있는 반면에 매우 생소한 독립운동가도 많다.

42) 안중근 의사 기념관, 이봉창 의사 기념사업회, 도산 안창호 기념관, 유관순 열사 기념관, 이준 열사 기념사업회, 백범 기념관, 제천 의병전시관과 같은 곳에 기록이 남아 있는 독립유공자는 풍부하게 연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독립운동가에게 관심이 더 필요하다.

오치서숙에서 머물 때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대한 인식과 대응책 등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윤봉길을 둘러싼 환경인 당시 중국에서 거주했던 한인의 생활이나 국제정세도 동시에 살펴야 한다.⁴³⁾

다만, 독특한 점은 해방이라는 일념 아래 많은 독립운동가가 활약했다는 점에서 리더십이 발휘된 목표나 방향은 너무나도 뚜렷하다. 역사에 등장하는 정치가나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경영자를 리더십 연구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와 비교해서 독립운동가에 리더십 이론을 적용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독립운동가의 연보(일생)를 알고 있으며 그 업적도 많은 사람이 증명하는 시점에 리더십 이론, 시각, 관점 등을 연결하려는 시도도 필요하다. 이는 앞으로 많은 사람이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정부나 사회단체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윤봉길은 뮤지컬, 연극, 잠수함 명칭 등에 널리 등장하는 위인으로 ‘OSMU(one source multi-use)’가 잘 되는 특수한 인물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를 소재로 서로 다른 장르에서 적용하거나 활용해서 파급효과를 크게 누리고 있다. 독립운동가는 국가의 상징성과 정당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존재며 애국 마케팅으로도 손색이 없는 발자취를 남겼기에 앞으로도 꾸준히 리더십 이론을 잘 구성해서 접목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V. 맺음말

이 글은 윤봉길의 리더십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43) 김형목(2023), 『윤봉길과 K-리더십에 대한 토론문』, 『유관순 열사 서거 103주기 기념 공동학술대회』, 106쪽.

이는 의사의 생애를 조망하려는 목적도 있으나 어떤 리더십 이론이나 시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목적도 포함한다.

자기희생은 도덕성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하는 살신성인 리더십으로도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리더가 자기희생을 발휘하면 구성원의 신뢰와 존경을 가져오고 내적 동기를 유발하며 리더가 가지고 있을 최후의 보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윤봉길은 어릴 적부터 글을 바탕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조직을 구성해서 추진했으며 말보다 글, 글보다 행동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위인이다. 한민애국단 단장인 김구를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고 즉시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자기희생 리더십을 발휘했다. 젊은 나이에 순국했으나 이를 계기로 세계에 독립운동이 무엇인지를 알렸고 중국과 함께 항일 전선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했다. 더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외연 확장에 결정적인 기폭제였다.

이처럼 삶을 순국으로 마무리했으나 윤봉길을 다양한 형태로 추모하려는 노력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OSMU(one source multi-use)’로 이해해도 손색이 없으며 글로 남겨진 자료가 많은 편이기에 계속 조망할 가치가 높은 독립운동가다. 특히, 독립운동가에게 적합한 리더십 논의를 더 확대해야 하며 이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당성을 높이고 인물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

참고문헌

- 김광재(2022), 『윤봉길의 상해의거와 중국측 역할』,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33.
- 김삼기(2022), 『상해의거가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과 역사적 의의』, 『청년 윤봉길, 평화를 꿈꾸다』, 윤봉길 의사 상하이의거 90주년 기념 대토론회, 국회의원 윤주경·매헌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매헌윤봉길월진회.
- 김재욱(2016), 『윤봉길 의거를 제재로 한 중국현대문학 작품과 그 특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5.
- 김학준(1992), 『매헌 윤봉길 평전』, 민음사.
- 김형목(2002), 『윤봉길의 현실인식과 청년운동사상 위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3.
- 김형목(2023), 『윤봉길과 K-리더십에 대한 토론문』, 『유관순 열사 서거 103주기 기념공동학술대회』.
- 박용욱(2009), 『윤봉길 의사의 농촌운동』, 『한국인물사연구』, 12, 한국인물사연구소.
- 손성욱(2023), 『1930년대 중국에서의 윤봉길 이미지 변화 양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2.
- 손승연(2012), 『자기희생적 리더십과 직무수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예산군(2008), 『아~윤봉길』, 윤규상(글 감수)·김순길(편집 그림).
- 우정사업본부(2007), 『2008년도에 남극, 금강산, 윤봉길 의사 우표 나온다(2007.12.31)』.
- 윤주경 의원실·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매헌윤봉길월진회(2022).

『청년 윤봉길, 평화를 꿈꾸다 : 윤봉길 의사 상하이의거 90주년 기념 대토론회』.

윤한수 · 최은수(2015), 『변혁적 리더십 특성요인으로서의 ‘리더의 자기희생’에 관한 반성적 고찰』, 『평생교육 · HRD 연구』 11(2).
장석홍(2022), 『윤봉길 의사가 꿈꾼 민족 독립과 인류 평화』, 『청년 윤봉길, 평화를 꿈꾸다』, 윤봉길 의사 상하이의거 90주년 기념 대토론회, 국회의원 윤주경 · 매현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 매현윤봉길월진회.

정운화(2015), 『대한독립을 위해 산화한 윤봉길 의사의 혼을 잠수함 건조에 품질로 불어 넣다』, 『기술로 품질로』 35.

정진석(2011), 『도전적으로 싱글거리는 표정이었다』, 현대사 속의 언론, 한국언론진흥재단.

진영미(2004), 『윤봉길 시문집 재고』, 『한국교육연구』 23.

한시준(2009),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의거에 대한 중국신문의 보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2.

홍선표(2018), “윤봉길 의거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반응”,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7.

국방일보(2023.04.30), “윤봉길 의사 숭고한 애국 · 독립 정신 영원히 기억”.

뉴스스(2020.10.15), “예산군, 윤봉길 의사의 글방인 오치서숙 역사 고증”.

브레인미디어(2023.07.12), “AI로 구현된 윤봉길 의사...소통도 가능 해져!”.

아시아투데이(2019.10.06), “예산군, 윤봉길 의사 일대기 그린 뮤지컬 ‘워치’ 피날레”.

연합뉴스(2023.09.21), “윤봉길·이봉창 의거 폭탄 지원한 김홍일 장군 추모제 22일 거행”.

주간경향(2023.08.14), “투사가 돼라 윤봉길 의사 유서엔”.

천지일보(2022.04.27), “스타벅스 텀블러에 ‘장부출가생불환’ 문구 담아… 윤봉길 의사 ‘의거 기념’”.

충남일보(2023.10.03), “예산군, ‘제50회 윤봉길 평화축제’ 성료”.

투데이신문(2022.06.28), “극단 예춘, 윤봉길 의거 90주년 특별기획 연극 ‘청년 윤봉길’ 공연”.

퍼블릭뉴스(2023.09.07), “창작오페라 ‘매헌 윤봉길’ 주인공, 양승호 테너”.

광복회 홈페이지(2023) www.kla815.or.kr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홈페이지(2023) www.yunbonggil.or.kr

A Viewpoint of Self-sacrificing Leadership about Maeheon Yun Bong-Gil Martyr

Youngjae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life of Maeheon Yun Bong-Gil martyr and incorporate self-sacrificing leadership. In this article, self-sacrificing leadership was defined as the will and practice of taking risks and sacrificing one's life to achieve national independence. From an early age, Maeheon Yun Bong-Gil martyr exercised his abilities based on writing and formed various organizations around the village to enlighten people around him. As he grew up, he led the independence movement with writing rather than words, and action rather than writing, and moved to China to further his cause. He sacrificed his most precious life to spread the world's will for independence and became a catalyst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Accordingly, Maeheon Yun Bong-Gil martyr can be said to have demonstrated self-sacrificing leadership in the spirit of a saint who lived and died. Based on this study, we should be able to apply a variety of leadership theories and perspectives suitable for independence activists. In the future, discussions on independence activist leadership must be further expanded to enhance the legitimacy of the country and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individual.

Keyword: Yun Bong-Gil, Martyr, Self-sacrificing, Leadership, Sacrifice

* Invited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Dankook University
(E-mail: koreafm@naver.com)